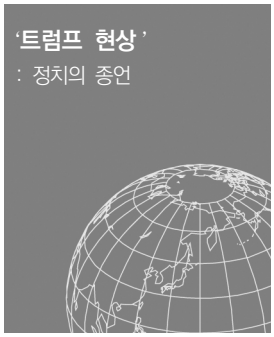
‘트럼프 현상’ - 정치의 종언

이진복 (민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치학 박사)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민주정책연구원



CONTENTS

1. 트럼프 미스터리 ——— 1

- 막장? 파격! ····· 2
- 황당? 행동! ····· 3
- 극우? 분노! ····· 6

2. 트럼프 지지자 ——— 9

- 백인 남성 저소득층 ····· 9
- 소리없는 유권자 ····· 9
- 분노하는 집단 ····· 10

3. 트럼프 메시지 ——— 14

- 법과 질서 ····· 14
- 미국 최우선 ····· 15
- 나는 당신의 목소리 ····· 17

4. 트럼프 정당 ——— 19

- 공화당 이념의 교조화 ····· 19
- 공화당 전략의 극단화 ····· 22
- 공화당의 급진적 시민운동화 ····· 24

5. 민주당의 대응 ——— 30
» 상식 ····· 30
» 통합 ····· 32
» 유능 ····· 34

6. 신민주당 시대 ——— 39
» 클린턴의 '제3의 길' ····· 39
»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 44
» 시대교체 ····· 48

'트럼프 현상' : 정치의 종언

1 트럼프 미스터리

❍ **트럼프 현상의 비밀**

- 정치권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온갖 막장 언행과 황당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의 안정적인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보다 정치실패 때문
- 문제해결 기능을 상실한 정치권, 정치가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인상. '이 모든게 정치 때문이다.' 정치혐오의 대중화
- 배려와 금도를 지키려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직설화법으로 파괴하는 트럼프의 막장은 정치혐오에 사로잡힌 유권자의 입장에서 '파격'으로 환호
- 트럼프 현상은 시끄러운 소수의 정치파괴와 조용한 다수의 정치혐오의 악순환으로부터 반사이익을 얻는 극단적 아웃사이더의 反정치 토네이도
-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를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일방적 행동으로 전환. 정치의 종언, 정치의 비즈니스화가 트럼프 현상
- 트럼프 현상은 좌우의 관점에서 보는 극우라기보다 이념을 가로지르는 포퓰리즘. 문제를 악화시키는 정치권, 팩트를 왜곡하는 언론계, 이를 조장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억만장자 정치자금 기부자 등, 정치계급 엘리트 일반에 대한 소리없는 유권자의 분노를 대변하고 격화
- 트럼프는 소리없는 유권자를 대변함과 동시에 '오바마 대표 저격수'로서 정부를 적으로 삼는, 따라서 정치를 파괴하는 공화당 강경파 지지자의 신뢰를 얻음

막장? 파격!

- 트럼프는 말실수가 유력 후보를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정치문법을 타파. '정치가 실패하면 막장은 파격이다.'
- 힐러리는 물론 자당 경쟁 후보들까지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여성, 소수인종, 이슬람교, 장애인에 대한 공공연한 비하를 비롯, 폭력을 부추기는 등,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political correctness)'를 파괴.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나의 기질(My strongest asset is my temperament)"
-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는 민권운동이후 여성, 인종, 종교 등에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로 미국의 관행과 정치의 금도로 정착
- 정치를 혐오하는 소리없는 유권자의 시각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는 더 이상 상식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였고, 급기야 정치 엘리트의 '위선'으로 간주
- 나아가 진보연하는 엘리트의 '오버', 말꼬리 잡는 '싸가지 없는 행태'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와 동일시,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검열기능', '억압기능'을 한다고 느끼면서 분노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이후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악화된,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불황(Great Recession)의 직격탄을 맞은 백인 남성 블루칼라 노동자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가 유색인종, 여성 등과 비교하여 자신들을 '특권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다고 느낌
- 더욱이 기성 정치권 인사이더, 여성 후보 힐러리의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 이미지는 이를 더욱 선명하게 함

- 언론의 집중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트럼프의 막장은 기성 엘리트의 '방송용' 위선이 아니라 직설화법의 통쾌함을 유발하는 파격으로 환호
- 정치가 문제라고 느끼면서 계층상승의 기회가 단절된 보통사람, 특히 백인, 남성, 블루칼라 노동자가 가진 좌절감, '비방용' 일상어를 트럼프는 그대로 사용
- 트럼프가 '나는 조용한 다수에 어필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용한 다수는 트럼프와 함께 한다(The silent majority stands with Trump)'는 선거 슬로건은 트럼프의 막장이 의도된 것임을 증명

▶ 황당? 행동!

- 트럼프는 경쟁자와 언론의 꼼꼼한 팩트체크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공약은 후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정치 문법을 타파. '정치가 실패하면 닥치고 행동이다.'

❍ 트럼프 포퓰리즘

– 포퓰리즘은 팩트가 아니라 느낌. 실현가능성이 아니라 명쾌함의 다른 이름. 분노한 집단의 술자리 잡담, 뒷담화를 날 것으로 표현, 선동

– 트럼프는 분노하는 백인 저소득층 유권자가 듣고 싶어 하는 주장을 극대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지라도 트럼프가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느끼도록 함

– 트럼프의 핵심적 주장,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테마는 범죄와 이민과 무역협정. 미국이 범죄로 들끓고 있고 이민자로 넘쳐나고 무역협정이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는 주장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음. 실상은 수십년이래 최저 수준의 범죄율과 이민자 유입. 무역협정은 새로운 부문의 일자리 창출

– 끊임없는 대치 상황에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 되도록 빠

른 결과물에 대한 열망. 미국의 국제적 위상 하락으로 인한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유권자에게 트럼프의 황당한 공약은 실현가능성, 역효과와 무관하게 즉각적 효과가 있는 명쾌한 해법으로 환호

–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무역협정 폐기, 돈 내지 않으면 방위협정 폐기, 흑인 총기사살 책임논란에서 일방적인 경찰 두둔, 테러리스트 고문 찬양, IS 융단폭격, 이슬람교와 테러리즘 동일시 등, 실현가능성과 역효과 고려 없는 공약 난발

- 트럼프의 힘은 정치권 아웃사이더.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문제는 정치. "당신은 정치인이다. 당신이 문제다. 국가부채를 왜 대처하지 못하는가? 너무 많은 정치 때문이다. 국경을 왜 통제하지 못하는가? 정치가 방해하기 때문이다."
- 절망한 유권자는 가시적 성과를 어필할 수 있는 '행동하는 사람(doer)'을 열망. 트럼프는 말하는 사람(sayer)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이미지. "정치인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all talk, no action). 좋게 들리지만 일하지 않는다(sounds good, doesn't work)."
- 트럼프는 억만장자 건설업자로서 성공한 사업가. 트럼프는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를 파괴. 정치의 비즈니스화가 트럼프 현상. "나만이 고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
- 더욱이 당내 경선에서는 선거자금을 전액 자신의 돈으로 충당하고, 본선에서도 소액 기부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 물주 역할을 하는 월스트리트를 비판하고 공화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폭스뉴스와 싸우는 등, 기득권 세력에 신세를 지지 않고 있다는 독립적인 '정치 혁신' 이미지
- 언론 또한 대중의 심각한 불신 대상. 특히 트럼프 지지자는 언론의 트럼프 공격을 믿지 않음. 이를 잘 알고 있는 트럼프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

론에 대해 출입기자 자격까지 박탈

❍ **언론의 신뢰성 위기**

-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친민주당 성향 정론지를 리무진 좌파, 캐비어 사회주의자나 읽는, 보통사람의 생활감정과 동떨어진 엘리트 신문으로 비판하는 것은 공화당의 오랜 전통. 정론지의 신뢰도 하락
- 레이건 정부 시기인 1987년 언론의 공정성 조항 철폐. 극우 라디오 토크쇼 유행. 1998년 클린턴 탄핵에 대한 진보의 반격으로 시작된 무브온(Move-on)을 필두로 좌파 SNS 블로거의 넷루트(Netroot) 활성화
- 고정 지지층이 듣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좌우 극단 대안 매체들의 상호 네거티브, 온갖 음모론이 난무
- CNN을 '공산주의 케이블 네트워크(Communist Cable Network)'로 비난하며 1996년 설립된 극우 언론 폭스뉴스는 정치를 스캔들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드는, 흥미위주로 단기간에 대성공. 이제 뉴스조차도 고정 시청자층이 듣고 싶은 뉴스 전달
-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미국인은 언론의 팩트 전달을 불신. 1차 대선 TV토론이 끝난 후, 라스무센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의 62%가 언론이 팩트를 왜곡한다고 믿고, 트럼프 지지자의 88%가 트럼프에 대해 언론이 팩트를 왜곡한다고 믿음
- 이러한 언론의 신뢰성 위기, 언론에 대한 불신이 트럼프 현상을 폭발하게 한 근본 원인 중 하나

- 트럼프는 온라인에서 엄청난 팔로워를 거느린 'SNS 대통령'. 셀럽(celebrity)으로서 자신의 언론 주목도를 이용, 선거운동 방식 또한 돈이 엄청 드는 TV 정치광고 비중을 극도로 낮추고 SNS와 대중유세를 통한 직접 소통 방식

극우? 분노!

- 트럼프는 당내 경선에서 당에 대한 충실성이 의심받는 후보는 떨어진다는 정치문법을 타파. '정치가 실패하면 노선이 아니라 분노가 먼저다.'
- 트럼프는 이념의 구분에 따른 극우가 아니라 분노의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는 좌충우돌 포퓰리스트. 보수 대 진보, 공화당 대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에 따른 분류에 구속되지 않음
- 트럼프는 뉴요커, 독실한 크리스찬 스타일이 아니라는 점, 심지어 민주당 정치자금 기부자였다는 점 등에서 공화당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전통 노선에서 이탈
-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개입주의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공화당 노선에 대한 정면 공격. 자당 전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고 민주당 보다 더 심하게 W. 부시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라크전 반대를 신랄하게 표현
- 립서비스로는 공화당의 공공의 적, 낙태에 찬성하는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해 우호적이고 사회보장 삭감에 반대하며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말하고 월스트리트를 맹공

❍ 트럼프의 공식 대선공약

– 트럼프의 립서비스와 달리 공식 대선 공약은 공화당 노선의 극단화 대변. 그러나 트럼프는 물론, 그 지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분노의 분출. 트럼프는 공화당 노선을 '족쇄'로 느낌

– 트럼프 공약은 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부정. 동성애자를 병자로 보고 '치료' 지원, 성차별에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하는 것을 거부,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할 것을 선언

–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가장 급진적인 부자 감세, 국경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장벽 건설, 석탄 생산 증대, 석탄을 풍부하고 깨끗하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지칭,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공유지에서 에너지 탐사 확대, 탄창의 용량을 제한하거나 대량 살상용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 50개 주 모두에서 미국인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 금지 등

- 공화당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트럼프가 공화당이 유약하다는 강성 지지층의 분노, 자신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온건 지지층의 분노를 모두 대변했기 때문. 이런 의미에서 트럼프 현상은 공화당 기성 엘리트에 대한 반란
- 트럼프는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대표적 버서(birther), '오바마 대표 저격수'. 하와이 출생 증명서라는 팩트가 나와도 이를 부정하는 음모론 설파. 오바마를 '흑인 무슬림 사회주의자'로까지 증오하는 공화당 강성 유권자의 신뢰를 얻음
- 다른 한편, 트럼프의 공화당스럽지 않음은 보수적이지만 사회 이슈에서 비교적 온건한 경향이 있는 공화당 지지층의 표를 독식.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는 사회적 이슈에서는 일반적인 공화당 지지자에 비해 온건
- 역설적으로 공화당 경선에서 더 진보적일수록 트럼프 지지. '진보적 성향이 1% 많을 때마다 트럼프 지지는 0.48% 오른다.'
- 젭 부시(Jeb Bush),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등 당초 유력후보들은 모든 이슈에서 공화당의 전통 노선에 충실. 16명이나 출마한 상황에서 공화당 지지층의 표가 분산

- 결국 분산된 강성 지지자의 표를 얻고, 공화당 온건 지지자의 표를 결집한 트럼프와 그나마 강성 지지자의 표를 모은 티파티 후보, 테드 크루즈(Ted Cruz)와의 양자대결로 귀착
- 트럼프와 크루즈는 공화당 기성 엘리트의 입장에서는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최악의 양자택일. 트럼프는 '공화당에 대한 살인', 크루즈는 '공화당의 자살'
- 트럼프는 표의 확장력이 없는 티파티 후보, 크루즈보다 본선 경쟁력이 앞섰기 때문에 결국 공화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

2 트럼프 지지자

백인 남성 저소득층

- 일시적인 트럼프 '바람'이 아니라 트럼프 '현상'을 만든 지지자 집단, 트럼프의 온갖 막장과 황당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40%대 이상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지지층은 대체로 백인, 남성, 저소득층
- 저소득층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함께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실질임금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고졸자 집단
- 트럼프 지지자임을 알 수 있는 핵심 지표는 대학 학위. '25세 이상 유권자 집단에서 대졸자가 1% 많을 때마다 트럼프 지지는 0.65% 떨어진다.'
- 트럼프의 대선 전략은 지지자 확대 전략이 아니라 심화 전략. 흔히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집단으로 알려진 히스패닉계와 여성으로 지지층을 확대하기보다 오히려 이들을 비난하고, 그 반동으로 유권자 구성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백인, 남성, 저학력자의 지지층 활성화
- 여기에 '오바마 대표 저격수'로서 확실한 이미지를 구축한 트럼프가 힐러리에 반대하는 기존 공화당 지지층을 공고화함으로써 40%대의 안정적인 지지도 구축. "힐러리를 감옥에 처넣자(Lock her up)"

소리없는 유권자

- 트럼프 지지자는 정치권이 자신들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소리없는 유권자'
- 무력감(powerlessness)과 소외감(voiceless)은 연령, 인종, 대학 학위,

소득, 무슬림·불법이민자·히스패닉에 대한 태도보다 트럼프 지지에 대한 훨씬 더 나은 예측 지표

- '나와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발언권도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
- 트럼프의 꿈은 공화당의 집권이 아니라 좌우를 가로지르는 포퓰리즘 연합. 트럼프는 샌더스의 핵심 지지층과 자신의 지지층이 겹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 바로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
- 레이건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민주당 카터 정부의 실정에 실망해 레이건을 지지했던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 즉 '레이건 민주당원(Reagan Democrat)'의 지지를 얻어 집권했듯이
- 트럼프 또한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 제조업 지역 러스트벨트(rustbelt)인 아이오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에 주로 거주하는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의 지지를 얻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
- 트럼프와 샌더스의 핵심 메시지는 동일. 미국의 시스템이 부자와 권력자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 트럼프는 무역협정 폐기, 월스트리트와 부자 로비스트 비판을 누구보다 신랄하게 표현

분노하는 집단

- 트럼프 지지자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보수 대 진보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 트럼프 지지자는 기성 정치 엘리트에 대해 분노
- 문제를 악화시키는 정치권, 팩트를 왜곡하는 언론계, 이를 조장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억만장자 정치자금 기부자 등을 포함한 정치계급 엘리트 일반에 대한 분노

- 위선적인 '리무진 진보(limousine liberals)'와 '컨트리클럽 보수(country-club conservatives)'에 대한 혐오
- 특히 대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 백인 노동자계층은 민주당 오바마 정부뿐만 아니라 공화당 엘리트에 대해서도 분노
- 1929년 대공황 발발 이후 1932년 민주당 루스벨트의 집권까지 3년간의 여파는 그 책임이 공화당에 있음이 분명했지만 부시집권 마지막 해에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불황 효과는 오바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으로 인해 그 책임이 오바마 정부에 있는 것처럼 비춰짐
- 공화당 또한 반대만 일삼는, 발목 잡는 정당화. W. 부시 정부 시절, 부자감세와 전비, 선심성 예산 등,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유발했던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 들어 갑자기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민생에 필수불가결한 정부지출을 봉쇄, 정부 폐쇄 강행
- 백인 노동자 계층의 상실감은 인종적 분노로 전도, '희생양 찾기 현상'. 트럼프 지지자는 소수 유색인종에 대한 반감이 높은 지역에 주로 거주

❍ 트럼프 지지자의 마음

– "트럼프는 사탕발림을 하지 않는다. 그는 사실 그대로 말한다. 그는 명백히 매우 성공적인 사업가이다. 내 생각에 그는 특수이익집단이 아니라 납세자를 대변하는 유일한 출마자이다. 나는 기성집단이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좋아한다. 기성집단이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는 말을 멈춰야 할 때를 모른다. 그러나 그의 가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은퇴자, 남성, 67세, 오하이오)

– "트럼프는 엄격한 의미에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대선에서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최소한 어떤 것을 이룰 기회를 가질 것이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칠 것이다. 때때로 그가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는 매우 정직한다. 보통 정치인들은 여기에서는 이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그들에게 좋은 말만 한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말한다는 것은 신선하다."(신앙인, 여성, 사우스캐롤라이나)

- "나는 트럼프가 워싱턴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지지한다. 그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기를 바란다. 로비스트가 지금 하듯이 워싱턴을 계속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찍는다." (솔직한 말, 남성, 81세, 메인)
- "트럼프는 내가 병이라고 부르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파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후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논쟁, 싸움, 불화, 파괴가 유발되었다. 그는 무례하고 거칠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로질러 주장한다. 많은 정치인들이 친절하지만 그는 불편하다. 그래서 파괴한다. 나는 이 사실을 좋아한다." (공격적, 남성, 27세, 아이다호)
- "트럼프는 정치무대에 특별한 캐릭터이다. 물론 그는 완벽한 후보는 아니다. 어떤 후보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이 나라에서 커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가 날뛰면서 정신병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 때문에 미국의 전통을 고수하지 못하고 있다." (텍사스 보수주의자, 남성, 27세, 텍사스)
- "트럼프가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필하고 있다. 나는 말만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정치인(all-talk-no-action-politicians)에 지쳤다. 나는 워싱턴 밖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한 사람을 가졌다고 느낀다. 바로 여기 있는 빌딩을 봐라. 세계 도처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빌딩을 봐라. 그는 억만장자이다. 그는 스스로를 증명했고 일자리를 창출했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상식적 보수주의자, 남성, 26세, 코네티컷)
- "트럼프가 국가의 관심사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생각한다. 물론 말하는 내용과 방식에서 극단적이다. 그는 우리 대부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성을 건드렸다.

이민, 범죄, 무슬림 입국. 힐러리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오바마 정책을 연장하려 한다. 모두가 말하듯이 나도 트럼프를 진짜 좋아하지 않지만 차악이기 때문에 그에게 투표할 것이다." (보수적 기독교인, 남성, 83세, 텍사스)

- "트럼프에 대한 첫 인상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우리의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주권국가이다. 우리는 법치국가이다. 오바마 정부는 우리의 법을 짓밟았다." (트럼프주의자. 여성, 로드아일랜드)
- "나는 트럼프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지지한다. 나는 그가 기업 경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좋아한다. 그는 무역을 안다. 그는 경제를 안다. 이는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이다. 나는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최고 지도자를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트럼프는 그의 기업에서 강력한 리더였다. 리더십은 사업적 재능과 함께 그가 가진 강점이다." (구직자, 남성, 48세, 아이오와)

3 트럼프 메시지

법과 질서

- 트럼프는 미국의 정체성을 '법과 질서의 나라'로 규정, 무엇보다 '법과 질서의 후보'임을 자처
- 이는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통해 금도를 지키려는 정치에 대한 정면 공격. 즉각적 효과를 내는 정치의 행정화, 비즈니스화 선언
- 또한 법과 질서는 전통적인 공화당 메시지. 현재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과장함으로써 혼란했던 1960년대 말을 연상, 기존 공화당 지지자 동원
- 닉슨은 1972년 법과 질서의 대통령 자임. '남부전략' 추진. 1960년대 급진적인 민권운동, 무분별한 히피문화에 대한 반발심을 이용, 보수적이지만 소외지역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남부 백인의 지지를 획득, 이후 남부를 공화당의 아성으로 전도
- 사회문화적 이슈에서 민주당을 '유약한 엘리트 정당'으로 낙인찍는데 성공, 공화당을 '터프한 보통사람의 정당'으로 변모시켰던 것처럼
- 트럼프는 자신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즉각적인 법과 질서의 회복을 약속함으로써 '흑인' 대통령 오바마와 '여성' 대통령 후보 힐러리를 '유약한 엘리트'로 낙인찍으려 함

❍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 "죽음, 파괴, 유약함. 이것이 힐리러 클린턴의 유산이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의 유산은 미국의 유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 즉 국내에서는 빈곤과 폭력, 해외에서 전쟁과 파괴는 이를 창조한 동일한 정치인에 우리가 계속 의지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 "우리는 법과 질서의 나라(a country of law and order)가 될 것이다."

–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범죄와 폭력은 곧 끝날 것이다.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안전은 복구될 것이다."

–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실패한 어떤 정부도 가치가 없는 정부이다. 우리나라의 상태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할 최종 순간이다. 나는 명백하고 정직하게 사실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올바르게(politically correct) 할 여유가 없다."

– "나의 계획은 국내에서 안전과 함께 시작할 것이다. 이는 안전한 동네, 엄격한 국경, 테러리즘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한다. 법과 질서 없이 번영은 없다."

– "거리에서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경찰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 내가 내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나는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를 회복할 것이다."

–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나는 법과 질서의 후보(the Law And Order candidate)이다."

> 미국 최우선

- '미국 최우선(America First)' 메시지는 개입주의와 자유무역을 신봉해왔던 공화당의 전통 노선으로부터 명백한 이탈. 트럼프의 일방주의는 국제정치 파괴

※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트럼프는 멕시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함. 멕시코가 거부하자 "지금 그들은 거부하지만 결국 내게 될 것이다."

- 트럼프의 미국 최우선은 힘에 의한 일방적 고립주의로 공화당의 일방적 개입주의와 방향은 다르지만 일방주의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동일. 공화당 기성 엘리트의 저항을 받지만 기존 지지자 동원 최대화
- 또한 '미국의 컴백' 메시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위상 하락에 따라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백인 남성에 어필
- 무엇보다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를 겨냥한 무역협정 폐지 주장 등은 샌더스 지지자를 목표. 이는 "수백만명의 민주당원이 우리의 운동에 결합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근거

❍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반대자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세계주의가 아니라 미국주의(Americanism, not globalism)가 우리의 신조이다.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정치인이 지도하는 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는 2017년에 완전히 변할 것이다."

– "나는 우리 노동자를 위한 다른 비전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 일자리를 보호하고 속이는 나라에 대항하는 새로운 공정한 무역정책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선거운동 첫날부터 대표 메시지였다. 이것은 내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는 순간부터 대통령 임기동안 대표 특징이 될 것이다."

–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우리의 운동에 결합할 것이다. 우리가 샌더스의 가장 큰 이슈, 무역을 고칠 것이기 때문이다. 수백만명의 민주당원이 우리의 운동에 결합할 것이다. 우리가 시스템을 고쳐 모든 미국인을 위해 작동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 "미국이 컴백하고 있다(America Is Back)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줄 때이다.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한 미국."

나는 당신의 목소리

- 트럼프는 잊혀진 사람을 대변하는 '나는 당신의 목소리이다(I AM YOUR VOICE)'라는 메시지를 반복함으로써 소수 엘리트 대 다수 서민의 대결 구도. 자신의 막장과 황당한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검열자, 비평가, 냉소가 엘리트 집단"으로 규정, 자신의 지지자를 "믿는 사람, 꿈꾸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으로 찬양
- 이를 통해 정치 혐오 상황에서 정치권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체인지 메이커' 이미지, 지금 당장 변해야 한다는 '행동가' 이미지를 확립하려 함. "정치인은 말만 하지만 나는 행동할 것이다."
- 엘리트의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기업의 선전문구와 조심스럽게 조작된 거짓말과 미디어의 신화"로 낙인, 스스로를 "어떤 거짓말도 없는 진실을 가지고 미국 국민을 존중하는" 행동가로 자처
- 힐러리를 "거대기업, 엘리트 미디어, 주요 정치자금 기부자의 꼭두각시", "말만 하는 정치인"으로 비판, 변화 저항자, 현상유지론자로 낙인

○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 "여러분이 기업의 선전문구와 조심스럽게 조작된 거짓말과 미디어의 신화를 듣기 원한다면 다음 주에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된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미국 국민을 존중할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없다."

– "거대기업, 엘리트 미디어, 주요 정치자금 기부자가 힐러리의 선거운동에 줄서고 있다. 이들은 그녀가 우리의 조작된 시스템을 유지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녀에게 돈을 쏟아 붇고 있다.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들의 꼭두각시이고, 이들은 그녀를 조종할 수 있다."

– "이것이 힐러리 클린턴의 메시지가 어떤 것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이다. 나의 메시지는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변해야 한다. 나는 매일 깨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내가 만난, 잊혀지고 버려지고 포기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결심한다."

– "나는 정리해고당한 공장 노동자와 끔찍하고 불공정한 무역거래로 붕괴된 공동체를 방문해왔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잊혀진 남성이고 여성이다. 열심히 일하지만 더 이상 목소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는 당신의 목소리이다."

– "정치인은 말만 하지만 나는 행동할 것이다."

– "미국은 검열자, 비평가, 냉소가 집단이 지도하는 믿는 사람, 꿈꾸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의 나라이다."

– "기억하라.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오늘밤 여기 이 자리에서 설 수 없다(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더 이상 우리는 미디어, 정치권에 있는 이들 엘리트에 의존할 수 없다. 이들은 조작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말할 것이다."

– "그 대신 우리는 미국을 믿는 선택을 해야 한다. 역사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

– "나의 반대자는 그녀의 지지자들에게 세 단어의 충성 서약을 복창하도록 한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다(I'm With Her). 나는 다른 서약을 반복할 것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다(I'm With You). 미국 국민과 함께 있다. 나는 당신의 목소리이다."

– "나는 약속한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다시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4 트럼프 정당

❍ **수권정당 공화당의 타락**

- 현재 공화당은 대통령직을 제외하고 전부문에서 선출직 공직의 다수를 장악. 상하원 모두 장악, 50개 주중 32개 주지사, 30개 주의회 장악, 8개 주의회 반분
- 이러한 수권정당 공화당이 트럼프라는 아웃사이더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 정당이 된 이유는 공화당 이념의 교조화, 전략의 극단화, 당 자체의 급진적 시민운동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
- 공화당의 트럼프 잉태는 신우파 이념과 전략에 내장된 비정상 DNA의 불가피한 결과 또는 시끄러운 소수라는 정치파괴 에어리언의 숙주 접수의 결과였고, 현재 예측 가능한 대선 결과를 볼 때, 유산될 확률이 높으며, 설사 승리할지라도 국가와 당의 운명은 숙주를 죽이는 에어리언의 출현

공화당 이념의 교조화

- 공화당의 트럼프 정당화는 1964년 골드워터(Barry Goldwater)에서 시작되고 1980년 레이건의 집권 이후 확립된 신우파 노선의 논리적 결과
- 골드워터의 극단주의는 정치 죽이기. 트럼프 현상의 씨앗을 뿌림. "자유를 방어하는데 극단주의는 부도덕이 아니다. 정의를 추구하는데 온건한 것은 미덕이 아니다."
- 레이건은 정부를 문제로 규정. "정부는 우리 문제의 해답이 아니다. 정부가 문제다(Government is not the solution to our problem, government is the problem)." 트럼프는 이를 계승, 극단화. '정치가 문제다.'
- 신우파 노선은 19세기로 돌아가자는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와 1950년대

로 돌아가자는 전통복원의 신보수주의의 모순적 결합. 그 결과물로 '작고 강한 정부' 약속

- 시장만능은 원리적으로 전통을 파괴하며, 전통은 시장만능에 적대적.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병행 불가능한 신우파의 헛된 꿈
- 트럼프 현상은 신우파 노선의 최종 진화 형태. 신자유주의에 정치파괴가 내장. 민주당 정부에 대한 무조건 반대, 정치파괴는 작은 정부라는 이념에 투철한 사명감
- 신자유주의의 '괴물 굶겨죽이기(starving the beast)' 정서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발현. 정부를 '괴물'로 여기는 심리는 레이건과 부시의 집권 기간, 정부를 굶겨 죽이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사실상 유도
- 오히려 민주당 정부 시대에 재정적자 감축 성공. 민주당 클린턴과 오바마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괴물 살리기 시도로 간주. 필수적인 증세는 물론, 긴급한 지출에 대해서도 정부폐쇄 등, 극단적 반대. 공화당은 보통사람의 민생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킴
- 더욱이 신자유주의 자체에도 모순이 내장.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증, 양극화만 심화
- 집권을 위해 반드시 백인 남성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이들에게 규제완화와 부자감세의 작은 정부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에 의존
- 큰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백인 남성이 아니라 게으른 흑인, 따지는 여성 등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라는 인종차별주의와 여성차별주의를 동원하면서 트럼프 현상 내재화
- 또한 신보수주의는 타협의 정치를 대결의 정치로 치환하는 정치파괴 내

장. 동성애, 낙태, 총기소유 등, 생활인의 먹고사는 문제와 무관한 이슈에 매몰되고 이를 선악의 진영대결로 몰아가는 정치파괴 강행

- 결국 공화당 신우파 노선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무능 때문에 트럼프에게 공화당이 잡아먹힐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보수진영 내부에서 제기된 상태
- 가령, 골드워터 보수주의를 탄생시켰던 정통 신우파 매거진,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는 2016년 1월 '트럼프에 반대하며(Against Trump)'라는 특집호에서 이를 경고. "보수주의자가 매력적인 노동계층 어젠다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블루칼라 유권자의 정당한 우려와 불만은 선동가에 의해 악용될 것이다."
- 신우파의 '작고 강한 정부' 약속은 공화당 집권 시에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음. 대규모 감세의 작은 정부와 강한 정부의 과다한 국방비 지출, 더욱이 인기 있는 필수적 복지지출을 줄이지 못하면서 엄청난 재정적자만 유발
- 지난 반세기 공화당 신우파의 역사는 '실망과 배신의 스토리'. 당의 노선을 지배하는 정치인, 싱크탱크, 미디어 등, 공화당 기성 엘리트에 대한 지지층의 분노 야기. 트럼프 정당화는 시간문제
- 인기 있는 신우파 블로그, 레드 스테이트(Red State)의 에릭슨(Erick Erickson)은 트럼프 현상을 정리. "공화당이 트럼프를 창조했다. 자신의 고정지지층에게 많은 약속을 했고, 이를 결코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 지지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공화당은 이념을 교조화하면서 극단적인 부자감세와 급격한 규제완화와 무조건적인 자유무역 등, 더욱 급진화. 공화당 지지층, 특히 서민들의 눈에도 공화당 엘리트가 부자들의 로비스트라는 것이 드러남. 서민의 더 큰 분노 유발, 트럼프 현상 발화

- 공화당은 지지자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민주당을 악마화. 공화당은 정치를 도덕화, 특히 '모든게 오바마탓(Blame-Obama-First temptation)'이라는 '오바마 죽이기'는 오바마 대표 저격수 트럼프의 위상만 강화, 트럼프 정당화

공화당 전략의 극단화

- 정치파괴, 국론분열을 기획, 폭발시켰던 'W. 부시의 뇌', 칼 로브(Karl Rove)의 '51% 전략'은 공화당의 트럼프 정당화의 로드맵
- W. 부시는 2000년 대선에서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를 기치로 '분열주의자가 아닌 통합자(a uniter, not a divider)'를 자처하면서 이길 수 없었던 대선에서 승리
- 그러나 이는 빈 말이었을 뿐, 실제로는 집권 8년 동안 정치를 파괴하고, 결국 국가를 파괴했던 '위대한 분열주의자(the Great Polarizer)'

※ 불행하게도 '100% 대한민국'을 약속했지만 결국 '51% 대한민국'을 강행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 진박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파괴하고 결국 나를 파괴했던 W. 부시 대통령의 정치파괴의 정치와 유사

- 이는 승리지상주의자, 칼 로브의 전략에 따른 것. 그는 2000년 대선에서 부동층 집중 전략 기안. 2000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치밀한 대선평가에 근거, 50 대 50의 선거구도를 깨뜨리는 것은 불가능, 1%만 더 이기면 된다는 51% 전략 도출
- 2000년 대선 평가에서 칼 로브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발견은 고정지지층이 경쟁 상대보다 더 크다면 부동층에서 패배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이 나라에는 분노하는 보수주의자가 분노하는 진보주의자보

다 2배 더 많다."

- 51% 전략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지지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Deepen, not broaden)'. 지지자 동원에 집중하는 네거티브 올인 전략을 통해 실제로 2004년 대선에서 승리. 바로 이 공화당 전략의 극단화, 네거티브 전략이 트럼프 현상을 내재
- 지지층을 심화시키려면 유권자의 분노 지점(anger point)을 활성화시켜야. "사람들은 대통령 W. 부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는다. 분노가 훨씬 더 강한 투표 동기이다." 지지자의 분노 유발이 트럼프 현상을 유도
- 자칭 무당층 유권자의 대부분은 사실은 자신의 팀 옷을 입기를 원하지 않는 '숨겨진 정당지지층'. 따라서 무당층에 숨어있는 소극적 공화당 지지자들을 찾는 것이 중요
- 소극적 공화당 지지자를 찾기 위해 칼 로브는 최초로 마이크로 타게팅(micro-targeting) 활용. 상업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유권자의 개별적 정보를 저장하는 거대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유권자 보관실(Voter Vault)' 구축
- 칼 로브는 투표경향과 소비경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소득수준이 아니라 소비패턴이 투표예측에서 더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 소비패턴의 정치적 선호 경향이 도출되자 이를 확대하여 모든 가능한 각도에서 유권자들을 세분화, 유권자의 개별적 분노 지점을 찾아 맞춤형 선거운동
- 칼 로브의 정치적 스승, 호로비츠(David Horowitz)의 양극화 전략은 바로 트럼프의 전략이자 공화당을 트럼프 정당화
- "정치는 다른 수단에 의해 수행되는 전쟁이다. ... 정치의 전쟁에서 당신은 단지 논쟁에서 우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싸움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싸운다. ... 전쟁에서는 두 개의 진영만이 있다. 우군 아니면 적군이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유권자를 우군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반대자를 가능한 적으로서 규정하는 것이다."

공화당의 급진적 시민운동화

- 정치파괴 돌격대, 티피티(Tea Party)의 공화당 접수로부터 시작된 공화당의 급진적 시민운동화는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터줌
- 2008년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티파티 운동은 W. 부시 정부의 처참한 국정실패로 인한 공화당 브랜드의 인기 추락을 만회하고 골수 활동가의 좌절감을 돌리는 탈출구
- 공화당 자체의 처절한 자기성찰에 기초한 철저한 자기혁신이 아니라 급진적인 시끄러운 소수의 자체 브랜드, '티파티'와 오바마 죽이기를 통한 일사분란한 전열정비라는 우회로 선택
- 공화당이 아닌 티파티라는 우회로를 통한 당의 극단화와 오바마 공격에 올인하면서 버서로서 오바마 대표 저격수인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공화당을 접수하는 트럼프 정당화 예고
- 티파티는 공화당 현장 조직을 장악한 극우 활동가, 자원위주, 근력기반 구경제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억만장자 정치자금 기부자, 폭스뉴스와 극우 라디오 토크쇼 및 출판사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시끄러운 소수의 네트워크
- 전국적으로 분산된 영세한 티파티 운동을 극우 억만장자와 폭스뉴스의 후원을 받는 프리덤워크(FreedomWorks), 번영을 위한 미국(American for

Prosperity), 성장클럽(Club for Growth), 티파티 익스프레스(Tea Party Express) 등, 시끄러운 소수, 활동가의 조직이 자칭 대변하면서 더욱 급진화

- 티파티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불만에 가득 찬 공화당 핵심 지지층, 즉 백인 노년 중산층의 데모 조직화로 언론과 정치권의 주목을 받기 시작
- 티파티가 공화당 핵심 지지층의 급진적 인사이더 운동이라면 트럼프 현상은 엘리트에 분노한 소리없는 유권자의 포퓰리즘 운동이자 아웃사이더 운동.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 대세가 되자 공화당 핵심 지지층은 자동으로 트럼프 지지, 공화당의 트럼프 정당화 완성
- 백인 노년 중산층은 대불황의 충격파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본격화되고, 오바마케어로 자신이 받아야 할 혜택이 나누어진다는 불만과 오바마케어에 대한 '사망위원회(death panel)' 마타도어를 믿으면서 전국적으로 데모 가열
- 티파티 데모의 대의는 무엇보다 '닥치고 오바마 반대'. 따라서 티파티는 오바마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타협하려는 '이름만 공화당원(RINOs- Republican in name only)', '온건' 구태 의원을 숙청하려는 급진적 보수주의 운동, 미국판 '홍위병 문화혁명'
- 티파티가 숙청하려는 '온건' 구태 의원은 이름만 공화당원인 진짜 온건 의원이 아니라 1994년 '공화당 혁명'을 이끈 깅그리치(Newt Gingrich)의 아이들로서 신우파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강경파 의원. 티파티 의원이 주도한 2013년 정부폐쇄처럼 이들 또한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5년에 그것도 더 오랫동안 정부폐쇄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탄핵까지 추진
- 티파티와 신우파 의원은 '전쟁으로서 정치'라는 극단적 정치관 공유. 그러나 티파티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급진적 어젠다를 노골적이고 자

랑스럽게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신우파 의원은 좀 더 목표 달성에 충실한 '개 호각 정치(dog-whistle politics)' 실천. 고정 지지층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반감 또한 될 수 있으면 줄이자는 투 트랙 전략 추구
- 티파티는 W. 부시 집권 시절에도 작은 정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바마를 막지도 못하고 있는 신우파 구태 의원에 분노. 오바마 시대를 관통하는 시끄러운 소수, 활동가의 비관주의. '지금 아니면 안 된다(Now or Never)'는 정서 확산
- 티파티에게 지지율은 중요하지 않음. 이들의 최우선 순위는 오바마와 야당답지 못한 기성 공화당에 대한 분노 표출. 공감이 아니라 존재감. '어떻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을까'
- 더욱이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및 주지사 다수를 탈환하는 대승을 거두면서 보수진영에서는 공화당의 승인을 티파티로 간주, 더욱 급진화. 시끄러운 소수, 활동가의 공화당 접수. 테드 크루즈 등 소수의 티파티 의원이 원내 공화당을 사실상 장악

❍ 공화당의 중간선거 대승 원인

–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유리. 중간선거는 40% 투표율, 대선은 60% 투표율. 따라서 민주당 지지층인 청년, 흑인·히스패닉계 등의 투표율이 낮은, 중간평가 성격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경향

– 따라서 민주당의 온건화 경향과 공화당의 급진화 경향이 지속되면서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는 공화당이라는 분점정부 시대 예상. 이는 또한 미국의 현 정치제도상, 불가피한 상황

– 상원의 경우는 50개주에서 일괄 2명 선출. 인구가 적지만 공화당 지지 성향인 남부와 록키산맥·대평원 지역의 보수적인 주의 수가 많기 때문에 공화당 유리

– 하원과 주의회의 경우에도 2010년 선거구획정에서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이 게리멘더링. 현역의원에게 유리하게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성향 유권자가 많도록 선거구 재획정

– 공화당 현역의원의 지역구가 대체로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안전 지역구가 되자 예비경선이 중요. 공화당의 급진화와 함께 이에 실망한 일반 유권자의 참여가 줄어들자 시끄러운 소수, 활동가의 티파티의 영향력 또한 훨씬 증대

-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의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방해주의(obstructionism)를 절대 노선화. 시끄러운 소수, 활동가의 데모의 정치(politics of demonstration)에 올인하면서 급진적 시민운동화
- 티파티의 분노의 데모는 민주적 프로세스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었다고 믿는, 절망한 소수의 반동적 보수주의. 그 정서적 정점이 트럼프 포퓰리즘
- 티파티의 급진적인 반동적 보수주의는 트럼프 포퓰리즘과 정서적 쌍둥이. 따라서 이들이 열성적인 트럼프 지지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님
- "보수적 반동주의는 대체로 사회변화의 물결 속에서 자신들의 생활방식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면서 퇴행적이다. 자기 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은 법을 포함해서 오랫동안 확립된 규범과 제도를 붕괴시키려 한다. 이들은 정치적 차이를 선악의 전쟁으로 보면서 자신의 반대자를 적으로 여긴다. 이들에게 타협은 정치적 방편이 아니라 패배와 같다. 이들은 사회적 변화가 친숙한 미국, 즉, 백인, 남성, 프로테스탄트, 본토박이, 이성애자 등 진짜 미국인을 파괴한다고 믿는다."

- 공화당 내에서조차 티파티를 공화당을 자살케하는 '가미가제 공화당원'으로 간주, 티파티의 급진주의를 보수주의가 아니라고 생각. "티파티는 성향이나 통치철학으로 보았을 때, 보수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완전히 非보수적인 폭주하는 마인드와 매우 급진적인 경향이다."

❍ 오바마가 티파티를 탄생시켰는가?

-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허니문 기간이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 미국' 전략에 따라 일방적 국정운영을 했던 W. 부시 대통령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100% 미국' 전략에 따라 집권기간 내내 타협의 정치, 협치를 추구
- 오바마의 주요 법안, 가령, 공화당의 분노 대상이었던 오바마케어 또한 민주당 강경파의 분노 대상, 하지만 접점 추구의 결과물
- 오바마는 성과를 중시했던 온건론자. 이것이 국가의 진로에 대해 60%가 넘게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대통령 지지도가 꾸준하게 50%를 넘었던 이유
- 오바마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의 티파티 멘탈을 경계, 분노의 정치 자제 촉구. "변화는 정의로운 분노 이상을 요구한다. 변화는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변화는 조직을 요구한다. ... 특히 변화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듣는 것을 요구하고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2013년 공화당의 정부폐쇄 위협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연설은 온건파 대통령의 진면목
- "이 논쟁은 진짜 재정적자에 대한 논쟁이 아니다. 팩트를 보면 우리의 재정적자는 지난 60년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올해 말까지 내가 취임할 때보다 절반 이상 재정적자를 감축할 것이다."
- "의회 공화당은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폐지하지 않으면 정부를 폐쇄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는 티파티에 너무 끌려 다니고 있다. ...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 존재감(political grandstanding)이다. 누구도 단지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의 신용과 신뢰를 위협할 수 없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법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경제와 수백만 명의 선량한 국민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 "의회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정부를 폐쇄하지 말아 달라. 경제를 폐쇄하지 말아 달라. 제때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 제때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국민의 일상적 관심사에 다시 초점을 맞춰 달라."
-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모든 종류의 대화를 할 수 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당신의 의견을 100퍼센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로 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다."

❍ 공화당의 일방적 정치양극화

- 최근 미국 정치학계는 정치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 정치파괴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극단적 정치 엘리트 탓이라는 오랜 정설을 기각. 공화당의 일방적인 정치 양극화(asymmetric polarization)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
- 공화당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훨씬 타협에 적대적이라는 일관된 조사 결과 등과 함께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횟수, 정부폐쇄, 대통령 탄핵, 선거구 재획정 의존 경향, 민주성 지지성향 유권자의 투표권 제한 노력, 상원의 인사 인준 거부, 부채한도 관련 의사방해 등을 통해 공화당의 급진화 결론
- 저명한 정치학자, 만(Thomas Mann)과 오른스타인(Ornstein)은 공화당이 정치양극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 "우리의 과거 저작에서 우리는 정당하다고 믿으면 양당을 모두 비판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문제의 핵심이 공화당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화당은 미국정치에서 반란을 꿈꾸는 국외자이다. 공화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극단적이다. 타협을 경멸한다. 팩트, 증거, 과학의 관습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정치적 반대자의 정통성을 거부한다. ... 공화당은 결국 적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다.'

5 민주당의 대응

상식

- 힐러리는 '함께 하면 강하다(stronger together)'는 자신의 대선 슬로건을 전통적인 미국의 지도 원칙이자 '사랑이 증오를 이긴다(love trumps hate)'는 상식과 동일시, '상식의 대변자'임을 자임
- 특히 오바마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애국심' 호소, 건국자의 애국심을 계승, 미국을 대변하는 '자연스러운 집권당' 후보임을 자임
- 오바마가 상식의 대변자를 자임, 온건보수 공화당원인 '오바마 공화당원,' '오바마칸(Obamacan-Obama+Republican)'의 지지까지 얻어 대선에서 승리했듯이
- 힐러리 또한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해 왔지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힐러리 공화당원(Hillary Republican)'의 지지까지 얻어 승리하고자 함. '민주당의 승리가 상식의 승리', 민주당 승리와 국민통합의 병행 추진

  ※ 공화당 전당대회의 연호 구호가 '힐러리를 감옥에 처넣자(Lock her up)'였다면 민주당 전당대회의 연호 구호는 '미국(USA)'. 민주당 전당대회 연사는 고정관념을 깨는 보통사람, 가령 이슬람 전쟁영웅 가족, 성공한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 신망받는 군인, 경찰, 소방관, 민감한 이슈 관계자, 희생된 경찰과 흑인 가족 등. 단 한차례도 백인 남성 연사가 연속 등장하지 않도록 해서 현재의 미국, 미래의 미국을 대변하는 정당 이미지 어필

- 오바마는 이번 대선이 좌파 대 우파간의 일상적 선택이 아니라 상식 대 몰상식의 큰 선택(big choice), 근본적 선택(fundamental choice)임을 강조, 이번 대선의 중요성 설득

- 특히 트럼프를 공화당스럽지도 보수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독립선언 정신에 반하는 몰상식한 후보로 낙인, 온건 보수주의자까지 설득하고자 함

❍ 힐러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 "(트럼프처럼) '내가 혼자 고칠 수 있다'고 미국인은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함께 고칠 것이다."

– "함께 하면 강하다는 것은 단지 우리 역사의 교훈만이 아니다. 이는 우리 선거운동의 슬로건만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언제나처럼 우리나라와 우리가 만들 미래의 지도 원칙이다. 이는 경제가 최상층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나라를 말한다."

– "사랑이 증오를 이긴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이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일할 미래이다."

– "우리는 한 나라로서 함께 해야 한다. ... 건국자들이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후 많은 애국자들도 그러했다. 이들은 애국심으로 함께 뭉쳤다. 애국심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한 이기심 없는 열정이다. 이것이 미국의 스토리다. 그렇다. 세계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렇다. 미국의 운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함께하면 더 강하다."

❍ 오바마의 민주당 전당대회 지지연설

– "이번 선거는 큰 선택이다. 공정하게 말해서 이번 선거는 전형적인 선거가 아니다. 단순히 정당이나 정책간의 선택, 좌파와 우파간의 일상적 선택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누구인지, 우리가 자치에 대한 위대한 미국의 실험에 여전히 충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선택이다."

– "공화당 전당대회는 특히 공화당스럽지도, 확실히 보수적이지도 않았다. 우리가 들었던 것은 우리를 서로 분열시키고 세계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심각하게 비관적

인 국가 비전이었다. 긴급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법이 전혀 없었다. 단지 적개심, 비난, 분노, 증오를 부채질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은 용기와 낙관과 창의로 가득 찬 나라이다.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은 괜찮고 관대하다.... 무엇보다 어떤 정당, 어떤 배경, 어떤 신앙을 갖던지 모든 미국인은 함께 하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 "미국은 이미 위대하다. 미국은 이미 강하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한다. 우리의 힘, 우리의 위대함은 트럼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이는 어떤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결국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다.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차이점이다."

– "트럼프는 질 수밖에 없는 도박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인에게 단점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약하거나 무서움에 떠는 국민이 아니다. 우리의 힘은 자신만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자칭 구세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통치받는 것에 기대지 않는다. 우리의 힘은 수백년전 이곳 필라델피아에서 선언한 영원불멸의 독립선언서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 진실을 자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함께 할 때 우리, 국민은 더 완전한 연합을 만들 수 있다."

– "미국은 우리를 위해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한 사람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미국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비록 힘들고 느리고 때때로 좌절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치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하여 성취할 수 있는 곳이다."

통합

- 힐러리는 이번 대선이 분열이냐 통합이냐의 중대 기로임을 강조. 자신은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파의 대통령, '온국민 대통령'이 될 것임을 선언
- 나아가 트럼프의 분열에 맞서 통합은 미국의 모토이며 진보임을 설파. 또한 주요정당 최초의 여성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것이 통합이며 진보임을 설명

- 오바마는 다시 한번 양자택일이 아니라 타협의 정치, 협치 강조. 힐러리가 타협을 통해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후보임을 설득
- 민주당 좌파 지지자를 겨냥, 자신이 백퍼센트 올바를지라도 일을 하려면 타협이 필요하고, 공화당을 악마화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공화당이 타협을 거부할지라도 참을성을 갖고 공통분모를 찾아야 함을 역설함으로써 힐러리 지지를 설득

❍ 힐러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 "우리의 건국자들은 우리가 함께하면 강하다는 지속적 진리를 받아들였다. 지금 미국은 다시 한번 기로에 서있다. 강력한 힘이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신뢰와 존중은 위태롭다. 우리의 건국자들처럼 어떤 보장도 없다."

– "이는 진정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일어설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토는 e pluribus unum. 즉 다수로부터 이루어진 하나다. 우리가 이 모토에 충실할 수 있을까? 우리는 트럼프의 답변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들었다. 트럼프는 우리를 분열시키기를 원한다. 세계로부터, 우리 각자로부터."

– "나는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파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분투하고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 나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미국인이 함께 하기 위해 오늘밤 우리는 더 완벽한 연합을 향한 우리나라의 행진에서 이정표에 도달했다. 주요정당이 여성을 대통령후보로 지명한 첫 순간이다. 어떤 천장도 없다. 하늘만이 한계이다."

– "미국의 모든 세대는 우리나라를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했다. 우리는 누구도 이를 혼자 할 수 없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이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는 때에 우리가 다시 함께 뭉칠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진보는 가능하다."

❍ **오바마의 민주당 전당대회 지지연설**

– "힐러리는 미국이 매우 다양한 나라이며 모든 이슈가 흑백의 양자택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심지어 여러분이 백퍼센트 올바를지라도 일을 하려면 타협이 필요하다. 우리가 항구적으로 서로를 악마시한다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힐러리는 진보하려면 서로에게 들어야 하고, 서로에게 자신들을 보고, 우리의 원칙을 위해 싸우지만 또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이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해서 더 좋게 하는 가능성을 창조하는 것이다."

– "이는 좌절감을 줄 수도 있지만 바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나를 믿어라. 힐러리 또한 알고 있다. 다른 쪽이 타협을 거부할 때, 진보는 멈출 수 있다. 지지자들은 점차 참을성을 잃을 수 있고, 리더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우려할 수 있다. 지지자들을 팔아넘긴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 "그러나 나는 약속한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마음을 변화시키고, 충분한 표를 가져올 수 있을 때, 진보는 정말 일어난다. 오늘날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2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 민주주의는 작동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면 단순히 선거기간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민주주의는 구경꾼 스포츠가 아니다. 미국은 '그래 그는 할거야(yes he will)'가 아니다. 미국은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yes we can)'이다."

유능

- 힐러리는 두려움에 맞서 초당적으로 일하는 '유능한 대통령' 자임. 대통령의 기본 임무를 일자리 창출로 아는 '일자리 대통령' 자임. 동시에 중산층의 번영이 미국의 번영임을 아는 '중산층 대통령' 자임
- 트럼프의 편협함과 호언장담,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민생을 향상시키는 담대한 어젠다가 진정한 변화임을 역설

- 나아가 공화당의 이슈인 국방분야에서 자신의 안심할 수 있는 리더십, 견실한 리더십 어필. 트럼프의 다혈질이 아니라 현명함, 판단력, 침착한 결심, 힘의 정확하고 전략적인 사용을 아는 최고사령관(Commander-in-Chief) 자임
- 또한 총기, 인종, 이민 등 민감한 이슈에서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공통분모를 찾아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해법 약속
- 오바마는 힐러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계획,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유능한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
- 반면 트럼프는 진짜 계획도 없고, 팩트도 없고, 슬로건만 제시하고, 공포만 불러일으키는 문제투성이 인간으로 낙인
- 특히 국방분야에서 힐러리가 검증된 최고사령관, 가차없이 임무를 완수하는 최고사령관, 무모하지 않은 최고사령관임을 강조
- 반면 트럼프는 우리 군대에 대해 모르면서 재앙이라고 모독하고 푸틴과 친하고 사담 후세인을 찬양하고 동맹국을 이탈케하는 이적 행위자로 묘사

❍ 힐러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 "트럼프는 공화당을 '미국의 아침'에서 '미국의 한밤중'으로 데려갔다. 그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각자에 대해 두려워하기를 원한다. 위대한 민주당 대통령 플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는 80여년전에 트럼프에 대한 완벽한 반박을 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가 맞서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장벽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모두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를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수백만의 이민자에게 시민권의 길을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테러리즘과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 모든 미국인과 우리의 동맹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 "민주당은 일하는 사람의 정당이다. ... 미국인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힘을 실어주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싶다. 대통령으로서 나의 기본 임무는 미국 바로 여기에서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 "나는 중산층이 번영할 때, 미국이 번영한다는 것을 믿는다. ... 나는 월스트리트가 메인스트리트를 다시 파괴하는 것을 결코,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 "나의 첫 100일안에 우리는 양당과 함께 2차 대전이후 새로운 좋은 일자리에 가장 큰 투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 클린 에너지, 기술과 혁신, 중소기업, 인프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나는 수백만명의 국민을 돕는 법안과 조약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 초당적으로 일하겠다."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리더십, 견실한 리더십을 갈망하고 찾고 있는 것은 놀랍지 않다. 우리가 전세계에서 우리 동맹국과 함께하고 국내에서 우리의 퇴역군인을 돌볼 때, 우리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리더를 원한다.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이다."
- "미국의 힘은 열내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미국의 힘은 현명함, 판단력, 침착한 결심, 힘의 정확하고 전략적인 사용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내가 맹세하는 최고사령관의 역할이다."
- "여러분은 이 전당대회 무대에서 총기 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가족 식구를 듣고 보았다. 여러분은 임무 중에 범죄자에 의해 희생된 경찰관의 가족 식구를 보고 들었다. 나는 우리가 여기서 공통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 총기만이 아니라 인종, 이민 등등, 이것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서로에게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최선을 다해서 다른 쪽으로 다가서도록 노력하자."
- "미국은 위대하다. 미국이 좋기 때문이다. 편협함과 호언장담은 이젠 됐다. 트럼프는 진정한 변화를 제안하고 있지 않다. 그는 공허한 약속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가? 전국적으로 민생을 향상시키는 담대한 어젠다이다. 당신의

안전을 지키고, 당신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당신의 아이에게 마땅히 가져야할 기회를 주는 담대한 어젠다이다. 이 선택은 분명하다."

❍ **오바마의 민주당 전당대회 지지연설**

- "힐러리는 선거운동 기간 여러분들에게서 들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계획을 갖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에 투자하고,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돕고, 엄청난 빚을 지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이것이 리더가 하는 일이다."
- "그 반대에 트럼프가 있다. 그는 진짜 계획이 없는 사람이다. 팩트도 없는 사람이다. 그는 사업가라고 자칭한다.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수많은 소송을 당하지도 않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하지도 않고, 노동자가 속았다고 느끼지도 않고 성공한 많은 기업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여러분이 위험한 세계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선택은 훨씬 더 분명하다. 힐러리는 전세계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힐러리는 우리의 정보팀, 외교관, 군대와 밀접하게 일해 왔다. 힐러리는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 판단력, 품성을 갖고 있다. 이는 힐러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군대는 가차없이 이슬람국가를 공격했고 그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 영토를 되찾았다. 나는 힐러리가 이슬람국가를 파괴할 때까지 가차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힐러리는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그리고 고문을 부활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는데 특정 종교를 금지시키지도 않고 이를 완수할 것이다. 힐러리는 차기 최고사령관으로 적합하다."
- "반면 트럼프는 우리 군대를 재앙이라고 부른다. 명백하게 트럼프는 세계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강한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에 대해 모른다. 트럼프는 미국이 약하다고 한다. 트럼프는 전세계 수십억의 남녀, 어린이가 여전히 미국을 자유, 존엄, 인권의 등불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 한다. 트럼프는 푸틴과 친하고, 사담 후세인을 찬양하고, 9.11 테러이후 우리 편이었던 나토 동맹국이 우리의 보호

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8년 전보다 오늘날 미국을 더 강하고 더 존중하는 한 이유이다."

–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을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로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는 오직 자신만이 고칠 수 있는 '분열된 범죄 현장'으로 미국을 부른다. 불법이민과 범죄율이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낮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진짜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단지 슬로건만을 제시한다. 트럼프는 공포만을 제시한다. 트럼프는 충분한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이길지도 모른다는 도박을 하고 있다."

6 신민주당 시대

클린턴의 '제3의 길'

- 정치노선의 경로의존성, 또는 '가속도의 법칙'. 정당의 정치노선이 일단 확립되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극단화된다는 명제
- 미국의 경우, '3연패의 법칙.' 대선에서 최소한 3연패를 당하기 전까지 정당의 정치노선이 더욱 극단화된다는 법칙
- 1932년 루스벨트의 압승과 4선, 1948년 트루먼의 승리까지 민주당의 5연승, 뉴딜연합 완성. 막다른 골목에 몰린 공화당은 1952년 대선에서 자유방임주의 노선 수정, 온건화. 아이젠하워의 '현대적 공화주의(Modern Republicanism)'로 승리
- 1980년 레이건의 집권과 재선, 1988년 부시의 승리까지 공화당 3연승. 더욱이 1968년 공화당 닉슨의 승리부터 따지면 민주당은 6번의 대선에서 5번 패배
- 그 한 번의 민주당 승리도 닉슨의 워터게이트와 불명예 사임으로 인한 반사이익. 1980년 민주당 카터 정부가 들어섰지만 처참한 국정실패. 민주당은 선의는 있지만 무능하다는 인상 확립
- 민주당은 '영구 불임정당'으로 선고받았음.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민주당은 인기 없는 민주당 브랜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철지난 노선을 근본적으로 혁신, '신민주당(New Democrat)'의 '제3의 길'. 처절한 자기성찰에 기초한 철저한 자기혁신 단행
- 클린턴의 제3의 길 이후, 신민주당은 뉴딜 노선의 리버럴리즘(Liberalism)을

폐기하고 제3의 길의 '진보주의(Progressivism)'로 컨텐츠 혁신, 통합의 정치 추구. '분열에 맞서는 통합이 진보'

- 1992년 클린턴 집권 이후 2012년 오바마의 재선까지 6번의 선거에서 유권자 득표수로 보면 공화당은 5번 패배. 그러나 공화당은 아직 3연패를 당하지 않았음
- 트럼프 현상은 공화당의 시끄러운 소수, 활동가의 좌절감과 배신감에서 비롯된 극단화 현상.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공감을 얻는 자기혁신이 아니라 반대진영에 대한 증오로부터 존재감을 얻는 자기과시 운동
- 오바마 증오운동인 티파티가 오바마 대표 저격수, 트럼프로 전이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 그릇된 노선을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이익에 매몰, 결국 공화당 살리기가 아니라 공화당 브랜드에 대한 가일층적 파괴
- 트럼프 현상은 1980년대 민주당의 고정관념, 신우파의 시대를 사실상 방치했던 '회피의 정치(Politics of Evasion)'의 공화당판 현상
- 공화당판 회피의 정치 또한 대권정당이 아니라 반사이익을 통해 의회 다수당에 만족하는 야권정당 심리. 따라서 신민주당 시대를 야유하지만 사실상 용인하는 '야당다운 야당'의 선명야당론 반영

❍ 회피의 정치

– 1980년대 대선에서 3번 연속 패배한 미국 민주당은 '회피의 정치'로 불리는 그릇된 고정관념에 대한 냉철한 자기성찰을 통해 신민주당의 제3의 길로 노선 전환

– 민주당의 뉴딜연합은 중산층과 서민, 흑인, 가톨릭, 노조로 구성된 다수파 연합. 그러나 1968년 이후 극단화는 민주당을 운동권 소수파 연합으로 변질. "흑인투사, 여성해방운동과 민권운동 지도자, 복지수혜자, 게이와 레즈비언, 노조로 이루어진 집

단이 민주당이라는 인상. 백점척도의 선호도 조사에서 뉴딜연합은 평균 65점이었지만 운동권연합은 평균 45점의 비호감"

- "회피의 정치의 중심목적은 의미있는 변화를 회피하고, 정당이 여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부도덕하다고 확신했고, 다수당 내의 소수파가 되기보다 소수당 내의 다수파가 되기를 원하는 구좌파의 이해관계를 반영했다. 구좌파는 대통령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잘못된 데이터와 자료에 근거해 현실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분석이 아니라 신화를 제시했다."
- 클린턴은 문제회피의 정치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정치, 정권심판 네거티브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진짜 문제에 대한 진짜 해법,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 클린턴이 '사람이 먼저다(Put People First)'를 선거구호로 내세운 것은 이런 맥락. "우리는 부시 때리기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우리는 진짜 사람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본연의 일을 더 잘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변화를 이끌 것이다."

① 좌파 원리주의의 신화(The Myth of Liberal Fundamentalism)

- 민주당이 전통적인 좌파 도그마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즉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민심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수의 '가치'에 충실하지 못해서 졌다는 신앙 간증
- 현재 공화당 또한 우파 원리주의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음. '이름만 공화당원'인 우파의 가치에 충실하지 않은 의원들을 숙청하려는 티파티는 이를 상징

② 동원의 신화(The Myth of Mobilization)

- 민주당은 시끄러운 소수를 통해 현재 투표하지 않은 고정 지지층을 투표하게 함으로써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메시지와 아젠다를 혁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공화당 또한 백인, 남성 등 전통적 공화당 지지자를 최대한 동원하면 51%로 승리할 수 있다는 동원의 신화를 맹신. 칼 로브와 트럼프가 이를 상징

③ **의회보루의 신화(The Myth of the Congressional Bastion)**

– 민주당이 '어머니의 정당'으로서 공화당 정부를 충분히 견제하면 되기 때문에 '2중대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집권의지 상실

– 공화당 또한 민주당 대통령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면 반사이익으로 의회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보다 비판에 집중하는 선명야당론에 사로잡혀 있음

- 클린턴의 제3의 길은 정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직시. '야당다운 야당'이 아니라 '정치다운 정치' 추구. "우리 정치권은 농담이나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선동꾼과 인종차별주의자 등 극단적 세력들이 정치를 파괴하기 전에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
-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성 정치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 공화당의 신우파 노선과 민주당의 구좌파 노선 동시 비판
- "정치가 기능을 상실한 이유는 기성 정치의 그릇된 고정관념 때문이다. 공화당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부를 해체하려 한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부를 확대하려 한다."
- 클린턴은 시끄러운 소수, 활동가의 양자택일, 그릇된 선택을 비판하면서 신민주당의 새로운 선택, 제3의 길을 해법으로 제시
- "우리의 새로운 선택은 낡은 이데올로기와 이것이 강요한 그릇된 선택을 분명히 배격한다. 우리의 어젠다는 좌파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둘 다이고 또 다르다. 그것은 민주당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과 새로운 선택에 대한 민주당의 저항을 거부한다."
- 클린턴의 제3의 길은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실

질적 성과로 말하는 자연스러운 집권정당 지향, 신민주당 시대 개척

❍ 제3의 길 공약

- 민주당의 제3의 길, 새로운 진보주의 공약은 이전 4반세기 리버럴리즘 공약과 다섯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랐음
- 첫째, 제3의 길 공약에서 중심은 분배가 아니라 경제성장이였음
- 둘째, 정책은 미국의 상식, 즉 개인의 책임, 자유, 신앙, 관용, 가족, 근로에 근거했음
- 셋째, 새로운 호혜의 정신을 강조했음. 활동적 정부를 공약하고, 동시에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을 강조했음
- 넷째, 정치적 양극단으로부터 나타난 신고립주의를 거부했고, 국익을 수호하고 민주적 가치를 촉진하는 국제주의적 외교 정책을 공약했음
- 다섯째, 정부를 혁신함으로써 더 분권적이고, 유연하고, 책임 있게 만들고, 공공 서비스에서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할 것을 공약했음

❍ 성공한 정부

- 클린턴은 정신불신의 시대에 민주당의 신뢰회복은 무엇보다 성공한 정부임을 자각. 1990년대 초, 팍스 아메리카의 종말이 선고된 순간에 미국의 부활을 이끌었음. 제3의 길은 미국을 부활시킴으로써 민주당을 부활시켰음
-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인은 역사상 가장 긴 경제성장을 향유했음. 2,2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은 30년만에 가장 낮았음. 인플레이션은 통제될 수 있는 수준이었고, 흑자예산이 되면서 국가부채를 갚을 수 있었음
- 소득과 임금은 계속 올랐고, 아동 빈곤은 하락했고, 복지 수혜자의 60%가 더 이상 복지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음. 소수자와 여성은 기록적인 혜택을 받았음
- 폭력 범죄율은 4반세기만에 가장 낮았고, 연방정부는 케네디 정부 이후로 가장 작은 효율적 정부였음. 레이건과 부시보다 10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출시켰음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 트럼프 현상이 오바마 증오 심리에 매몰되고 공화당 기성 엘리트에 분노한 티파티 운동의 급진주의, 이로 인한 일상적 정치교착 상황 속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정치권, 나아가 기성 엘리트 전체에 대한 소리없는 유권자의 분노,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는 잊혀진 사람의 포퓰리즘을 대변, 공화당의 수권능력을 파괴했다면
- 오바마 현상은 W. 부시 집권기, 극심한 정치양극화 속에서 시끄러운 소수, 활동가의 적대적 공생을 타파,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잘살고자 하는 희망, 문제해결 열망을 대변하는 '담대한 희망', 이를 통해 민주당을 다시 한번 자연스러운 집권정당화

❍ **분노가 아니라 희망(hope, not anger. sunny over cloudy)**

- 상대방의 극단적 행태, 실수를 바라는 반사이익에 기초한 분노의 정치는 수권정당이 아니라 항의의 정당, 급진적 시민운동 마인드
- 분노는 대안 없이 적대적 공생의 정치에 안주하는, 태생적으로 변화를 바라지 않는 보수적 세계관의 DNA.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의 승리 공식은 변화를 '희망'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칼 로브를 위시한 보수진영은 유권자의 투표성향을 세분화, 특히 지지층의 분노 지점을 찾기 위해 마이크로 타게팅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정치를 파괴했다면 오바마의 진보진영은 유권자, 특히 부동층의 희망 지점(hope point)을 찾기 위해 활용, 정치 정상화 기여
- 오바마는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공화당의 '공포의 전략'에 맞서 '그래 할 수 있어(Yes we can)'라는 '희망의 전략' 사용. "지금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결연하고 굳건한 리더십의 시기이다." "부시 정부는 실패했지만 미국은 실패하

지 않았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국민은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나라이다."

– "결국 이는 이번 대선의 의미이다. 냉소주의 정치(politics of cynicism)에 참여할 것인가? 희망의 정치(politics of hope)에 참여할 것인가? ... 난관에 직면해서도 희망을 갖자. 불확실성에 직면해서도 희망을 갖자. 담대한 희망. 결국 이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이 나라의 기반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앞으로 더 나은 날들이 있다는 믿음이다."

- W. 부시 시대는 좌우의 극단적 정치양극화 시대. 좌파는 부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 2000년 대선은 물론 2004년 대선도 공화당이 선거를 조작한 것으로 생각
- 부시 증오는 민주당 활동가, 특히 무브온, 데일리코스(Daily Kos) 등 이른바 블로거와 SNS 키보드워리어 넷루트의 공공연한 전략
- 하워드 딘의 지지자 조직화, '50개주 전략'은 칼 로브의 지지자 활성화, '51% 전략'과 동일. 딘은 W. 부시 때리기에 올인. "W. 부시 덕택에 진보 진영은 게임의 현단계에서 잘 조직화되어 있다. 부시는 우리에게 공화당 활동가를 격분시켰던 빌 클린턴이다."
- 더욱이 테러와의 전쟁, 특히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 논쟁은 좌파와 우파운동을 동시에 활성화, 정치의 문제해결 능력을 파괴하는 좌우 극단의 적대적 공생
- 오바마가 '혁신적 온건론자(radical moderate)'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온건이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과격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구태'라는 대중적 인식 변화를 반영
- W. 부시 시대, 문제를 악화시키는 좌우의 과격한 정치,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켰던 정치양극화 속에서 오바마는 '온건한 문제해결자' 이미지 어필,

'정치다운 정치'를 복원하는 '담대한 희망'을 실천함으로써 '혁신적'인 정치인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

❍ **'담대한 희망'**

– 좌우 극단의 시끄러운 소수, 활동가의 정치파괴와 이로 인한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치혐오가 심화되는 악순환 속에서 오바마는 초당적인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담대한 희망'을 주창, 신민주당 시대의 아이콘이 됨

– "(W. 부시 집권이후) 민주당은 반사이익정당(the party of reaction)이 되었다. ... 그러나 더 첨예한 당파적, 이데올로기적 전략을 추구하려는 민주당의 어떠한 시도도 현재의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우리가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우리의 대의를 과장할 때마다 패배한다고 생각한다. 이데올로기적 순수성, 경직된 정설, 정치적 논쟁의 뻔한 예측성 때문에 한 국가로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자택일의 사고에 빠지는 것이다. 국민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교조적 사고와 노골적인 당쟁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광범한 다수, 즉 선의를 가진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층이 국가혁신 프로젝트에 다시 함께 하는 것이다. ... 국민은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도그마와 상식, 책임과 무책임, 지속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 간의 차이는 알고 있다." 『담대한 희망』

- 오바마는 "매우 절대주의적인 우파가 있고, 동일하게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좌파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변화는 국민이 좌우의 첨예한 분열을 깨뜨리려고 한다."는 것으로 규정

- 따라서 "양자택일 공식들(either/or formulations)은 끔찍한 것이다. 이것들은 쓸모없다." "공화당만큼이나 민주당도 낡은 사고방식과 과거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

- 오바마는 자신을 '신민주당원'으로 규정하고, "좌파도 우파도 아닌 새롭고 다른 길로 국가를 지도할 것"을 공약. 오바마는 자신을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 찬성하고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성장친화적 민주당원(pro-growth Democrat)"이라고 하면서 클린턴의 '신민주당' 계승을 자임
- "나는 언제나 신민주당이란 말을 좋아했다. 신민주당과 그 철학은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교착상태를 넘어 새롭게 생각하려는 것이다."
- 이런 맥락에서 구좌파가 오바마를 클린턴과 동일시, 클린턴을 '공화당 2중대(me-too Republican)'로 비판했던 것처럼 오바마를 '부시 2중대(Bush 2.0)'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님
- 오바마가 전국적 인물로 부상한 계기였고 이라크전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미 정치를 정상화하는 국민통합 주창
- "진보의 미국도 없고 보수의 미국도 없다. 미합중국만이 있다. 흑인의 미국도, 백인의 미국도, 라티노의 미국도, 아시아계의 미국도 없다. 미합중국만이 있다. ...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애국자도 있다. 이라크전에 찬성하는 애국자도 있다."
- 테러와의 전쟁은 공화당의 필승카드이자 좌우파의 극단적 국론분열 이슈. 오바마는 '강하면서 동시에 영리한(strong and smart)' 국민통합의 혁신적 해법을 제시, 테러와의 전쟁 이슈에서 공화당의 우위를 무력화
- 테러와의 전쟁을 승리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테러주범, 오사마 빈라덴과 알 퀘이다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이라크에서 책임있게 철군하면서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미군의 증원을 주장. 좌파의 이라크전 반대와 우파의 테러와의 전쟁 승리를 동시에 만족

- 오바마는 2012년 대선에서도 W. 부시의 51% 전략의 진보 버전인 99% 전략을 거부하고 100% 미국의 전진(Forward) 메시지.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불황 여파가 지속되면서 일어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Occupy Wall Street) 운동의 99% 전략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음
- "우리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강하다. 나는 이 나라가 모두가 공정한 몫을 얻고 모두가 공정한 부담을 지고,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지킬 때 성공한다고 믿는다. 이는 민주당의 가치도 아니고 공화당의 가치도 아니다. 이는 1%의 가치도 아니고 99%의 가치도 아니다. 이는 미국의 가치다. 우리는 이를 다시 주장해야 한다."

시대교체

-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의 계승자, 힐러리가 승리한다면 민주당의 3연승, '신민주당 시대' 확립. 민주당은 상식의 정당, 통합의 정당, 유능한 정당으로 자연스러운 집권정당 공인
- 오바마는 시대교체를 이끈 게임 체인저, 미국 정치사에서 리버럴리즘의 시대를 열었던 루스벨트, 신우파의 시대를 확립했던 레이건과 같은 반열에 올라 설 것임
- 민주당 입장에서 루스벨트가 20세기 대공황으로부터 미국을 구하고 북부 노동자계층과 남부 소외지역의 연합, 잊혀진 사람(Forgotten Man)의 뉴딜연합을 통해 민주당의 한 시대를 개창했다면
- 오바마는 21세기 대불황으로부터 경제를 살리고, 혁신주도, 지식기반 신경제 시대에 다수가 되고 있는 새로운 주류, '떠오르는 미국 유권자(Rising American Electorate)'를 대변함으로써 신민주당 시대 개창

- 신민주당 시대는 시끄러운 소수의 정치파괴에 맞서 정치를 살리려는 진보주의 시대.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는 공화당이라는 반복적인 분점정부를 배경으로 만성적인 대결의 정치, 대치의 분노를 넘어 불가능한 것 같은 타협의 정치, 협치의 담대한 희망 추구. 이런 의미에서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은 시대교체의 메시지
- 오바마가 클린턴의 제3의 길, 신민주당 계승을 자임하고, 힐러리 또한 클린턴과 함께 제3의 길 기안과 집행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결국 제3의 길은 시대교체의 청사진
- 정치혐오의 시대에 시대교체는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을 얻는 희망의 메시지와 담대한 프로그램에 근거
- 뉴딜시대를 열었던 루스벨트의 '잊혀진 사람'은 파국적인 대공황에 직면해 잊혀진 사람의 '희망'을 고취, 뉴딜정책이라는 담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메시지였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 공화당의 한 시대를 확립했던 레이건의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는 '미국의 아침(Morning in America)'이라는 낙관주의에 근거. 헤리티지 재단의 '리더십을 위한 위임(Mandate for Leadership)'이라는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었음
- 반면, 트럼프의 '잊혀진 사람'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메시지는 정치질서를 재편성했던 루스벨트와 레이건을 좌충우돌 모방했지만
- 극성 지지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분노의 메시지와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선동형 정치, 정치를 파괴하고 결국 국가를 파괴하는 포퓰리즘

〈참고 문헌〉

안병일.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메디치, 2016)

이진복. 「미국의 새로운 진보도 생각을 바꾸었다」. 『새로운 진보정치』(메디치, 2015)

Baer, Kenneth S. *Reinventing Democrats: The Politics of Liberalism from Reagan to Clinton*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Bland, Scott. "5 Myths about Trump Supporters"(The Politico, 2016.3.3)

Brownstein, Ronald. *The Second Civil War*(Penguin Books, 2007)

Chait, Jonathan. "Donald Trump hasn't Killed the Tea Party. He is the Tea Party"(The New York Times, 2016.5.19)

Clinton, Hillary. "Hillary Clinton's Full Acceptance Speech at Th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The Democratic Strategist, 2016.7.29)

Cohn, Nate. "The One Demographic that is Hurting Hillary Clinton"(The New York Times, 2016.7.25)

_____. "How Trump's Campaign could Redraw Voter Allegiances"(The New York Times, 2016.7.29)

Cook, Charlie. "The Story of 2016: Republicans Feeling 'Betrayed' by their Leaders"(The National Journal, 2016.8.29)

Democratic Strategist. "Why the GOP is Stuck with Kamikaze Republicans who Betray Real Conservatism"(2013.9.27)

Dionne Jr, E. J. *Why the Right Went Wrong*(Simon & Schuster, 2016)

_____. "The Irony of Celebrity Populism"(The Washington Post, 2016.5.1)

_____. "Obama didn't Birth Trump's Movement"(The Washington Post, 2016.5.15)

Edsall, Thomas B. "Why Trump Now"(The New York Times, 2016.3.1)

_____. "The Anti-P.C. Vote"(The New York Times, 2016.6.1)

_____. "The Apotheosis of Donald J. Trump"(The New York Times, 2016.7.21)

Fabian, Jordon. "Obama Warns Dems against 'Tea Party Mentality'"(The Hill, 2016.4.7)

From, Al. *The New Democrats and the Return to Power*(Palgrave Macmillan, 2013)

Kennedy-Shaffer, Alan. *The Obama Revolution*(Phoenix Books, 2009)

Kilgore, Ed(ed). *The Extremist Conquest of the GOP*(The Democratic Strategist, 2013.9.23)

Logak, Lisa(ed). *Barack Obama in his own Words*(Carroll & Graf Publisher, 2007)

Malone, Clare. "The End of a Republican Party"(The FiveThirtyEight, 2016.7.18)

Meyerson, Harold. "A Tea Party Purge among the GOP"(The Washington Post, 2013.10.15)

Obama, Barack. *The Audacity of Hope*(Crown Publishers, 2006)

_____. *Inspire a Nation*(Publishing 180, 2009)

_____. "Obama to Congress: 'Do not Shut Down the Government"(The Real Clear Politics, 2013.9.27)

_____. "I'm ready to Pass the Baton"(The Politico, 2016.7.28)

Politico Magazine. "Has Trump Killed the GOP"(The Politico, 2016.1.29)

Persily, Nathaniel(ed). *Solutions to Political Polarization in America*(Cambridge Univ. Press, 2015)

Robinson, Eugene. "Donald Trump is the Product of our Failed Political System"(The Washington Post, 2016.2.22)

Schneider, Bill. "The Boost Republicans are Getting from Attacking 'Political Correctness"(The Reuter, 2015.12.30)

_____. "One Secret to Trump's Political Success: Donald is a 'Doer'"(The Reuter, 2016.5.5)

Skocpol, Theda. "Why the Tea Party isn't Going Anywhere"(The Atlantic, 2013.12.26)

Skocpol, Theda and Vanessa Williamson. *The Tea Party and the Remaking of Republican Conservatism*(Oxford Univ. Press, 2013)

Thompson, Derek. "Who are Donald Trump's Supporters, Really?"(The Atlantic, 2016.5.1)

Thorson, Emily. "5 Political Myths Trump is Exploding"(The Politico, 2016.3.28)

Trump, Donald. "Donald Trump 2016 RNC Draft Speech Transcript"(The Politico, 2016.7.21)

USA Today. "Who are Donald Trump's Supporters? Trump Nation"
http://www.usatoday.com/pages/interactives/trump-nation/#/?_k=smz4vw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